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우리는 누군가와 다투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 줍니다.

사울 왕은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말렉 사람이 찾아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울며 금식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비극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함부로 대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미워하고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는 사람이 됩시다. 미움보다 사랑을, 복수보다 긍휼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

말씀봉독 사무엘하 1:1~16절 다 같이

설교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해요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미움과 복수보다 사랑과 긍휼을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1.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왜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나요?
2.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